

섬세한 공예미 갖춘 고려가람

수덕사 대웅전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나라의 종교를 불교로 삼았던 고려시대에는 불교문화가 가장 번창했던 때다.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고려시대의 불화나, 이제는 박물관의 유물로만 전해지는 불교 공예품을 보면, 고도로 발달한 당시 불교 예술의 힘과 정신에 넋을 잃는다. 불교 건축도 대단히 발달하여 중국의 사신으로 개경에 온 서경이란 사림은 개경 가람들의 뛰어난 감동(고려도경)이라는 책에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려시대의 가람이 온전히 남은 곳은 하나도 없고, 단지 몇 개의 목조 건물만이 흔적으로 남아있다.

남한 땅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건물로는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당, 영선사에서 거조암의 영선전, 그리고 예산 수덕사 대웅전 정도다. 북해 땅에도 성불사 웅진전 정도가 남아 남북한 모두 함께 봐도 열 손가락이 남는다.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 건물들이 고려시대 건축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들은 아니다. 수덕사 대웅전이나 봉정사 극락전은 갖은 전란과 사회적 탄압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보존된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 고려시대를 대표할 만한 불교 건축물은 당연히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 있었을 것이고, 남아있는 예들은 극히 평범한 사찰 사찰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안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건물들의 그 당당한 기품과 아름다움은 대다수 조선시대 건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현존하는 고찰들과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조선시대의 것들이다. 그러나 99%는 17세기 이후의 근세 작품들이다. 그러나 예술적 가치란 수직인 우세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몇 안되는 고려시대의 법작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조선시대 건물들보다 한차원 높은 건축적,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시대 건축이 추구했던 이상들을 잘 보여준다. 수덕사 대웅전은 한마디로 잘 짜여진 커다란 가구이며, 건축이 아니라 보다는 공예품에 가깝다. 대웅전의 아름다움은 측면에서 잘 드러난다. 5개의 기둥은 건물 외벽을 정확히 4등분하고 있으며, 가운데 높은 기둥으로 나누어지는 장사각형의 벽면은 정교한 비례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지붕들은 기둥들과 정확하게 결합되어 있어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곡선형의 휘어진 들보이다. 쇠꼬리 모양으로 휘어졌다고 해서 '우



기둥과 기둥 잇는 쇠꼬리 모양의 들보 정교한 비례구성 백미

미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부재는, 기둥 사이를 단단히 얹어며 전체 건물을 일체화 시키려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섬세한 아름다움 때문에 장식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받을 정도다. 통통한 공예품은 쓸데없는 장식을 붙이지 않는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꼭 필요한 요소들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쓰기 편하고 튼튼하기만 하다면 예술품이 될 수는 없다. 그 최소의 요소들을 가지고도 아름다움을 창조한 것만이 예술품이 된다. 수덕사 대웅전의 모든 기둥과 들보들은 불필요한 것이 없다. 구조적으로 꼭 필요한 부재들만 이루어졌으면서도 그 부분부분에서 미학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전체적인 구성도 정교한 비례 체계에 따라 이루어졌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물들은 정부가 이러한 공예적 정신에 충만해 있다.

지금이야 덕숭림으로 중요한 가람이자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고려시대에는 전하여 수없이 많은 산골 사찰이었던 이곳에 이처럼 훌륭한 건축물이 남

○수덕사 대웅전의 빼어난 아름다움이 잘 드러난 측면. 구조적으로 꼭 필요한 부재들만 이루어졌으면서도 정교한 비례체계와 완벽한 조화로 공예품에 가까운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덕사 대웅전을 통해서 고려시대 건축과 예술의 그 높은 수준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작은 사찰 건물을 짓는 지방의 이층 없는 건축이나 장인들도 완벽한 기술은 물론, 뛰어난 심미안을 가졌던 위대한 시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예산 수덕사는 여러 가지로 일화 많은 가람이다. 경최스님과 만공스님의 주석처로 근세 불교의 선풍을 크게 일으킨 성지이며, 개화기의 여류 시인으로 장인의 화제를 모았던 김일엽 스님이 수행하고 입적한 곳이기도 하다. 절 입구의 수덕여관은 현대 미술계의 거장, 이응로 화백이 조각한 바위그림이 남아있기도 하다.

이처럼 세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관광 명소로 성장한 수덕사에 일대 중창불사와 바람이 불었다. 대웅전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강당을 지었는가 하면, 호젓하게 올라가던 오솔길은 커다란 연못과 거창한 돌다리로 바뀌었다. 거대 강당은 대웅전을 3배쯤 뺄만한 형태였고, 돌다리는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를 흉내내 모사 품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고려 장인들의 공예적인 솜씨도 없었고, 섬세한 정성도 없었다. 물결만이 부어진 현대의 현박한 과시와 거친 기계적 솜씨가 있었다. 다행히 이 흉물들을 정리하여 원래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번 파괴된 모습은 쉽사리 복구되지 않는다. 고려시대의 솜씨를 능가할만한 예술적 건축적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한, 일단은 보존에만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우선은 그 보존 노력이 선조들의 유산을 파괴하지 않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불교 환경운동 '봄바람'

지역·환경·시민 단체와 활발한 연대활동

지난 1월7일 서울행정법원이 (주)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10일 제기한 해인골프장 '공익사업인정' 재신청 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결정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가야산국립공원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의 사실상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교계가 74개 전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 9년동안 끈질기게 투쟁해 온 연대활동의 성과라는데 더욱 의미가 있었다.

최근 불교계가 이처럼 교계내·외 환경·시민단체와의 활발한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어 정보 취합, 각종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전문지식과 사업의 기회·방법 요령 습득 등을 통한 불교환경운동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불교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오는 4월 춘천에서 '지역생명운동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는 등 종교의 벽을 넘어선 지역 환경시민단체 연합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불교환경교육원은 지난 90년 출범 이후 전국기독교운동본부 민간환경경



주 감사가 지난해 11월 지역 종교인, 언론인, 시민단체 임원들이 참여하는 '공주 계룡산 환경 지킴이 모임'을 구성해 환경보존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경남 산양 용화사가 지난해 10월 불교·시민·산악인단체들로 구성된 '미륵산 케이볼카 설치 반대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은 대구 대자연보전환경협회 회장을 맡아 대구지역 환경운동들

9년 투쟁 끝 가야산 골프장 무산시켜

불교환경교육원 종교인 환경모임 추진

금산사 '새만금' 감사 '계룡산' 보존운동

서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를 창립했다. 단위 사찰별로 지역 환경 시민단체와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김재경 금산사 1월30일 녹취연담. 환경운동연합, '새만금간척사업 부안군대책위' 등 7개 환경단체와 함께 '새만금 매항제'를 병행하고 새만금 갯벌 보존운동에 나선 것을 비롯 공

주도하고 있다. 또 대구불교산악회 녹색환경감시단은 영월 계룡산 건설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학교 환경문제' 부산모임은 금정산 가구가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불교환경운동가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사찰환경 침해가 더욱 날아날 것으로 보고 종단과 해당 사찰은 물론 지역 환경·시민단체와 연계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환경관련 분쟁 사안은 김천 직지사, 구미 원각사, 울산 청룡암, 구미 보천사, 수원 청련암, 강남 봉은사, 용인 용화사 등 7곳.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김명구간사는 "올해 안에 (사찰환경 지침서)를 발간해 환경분쟁 사찰의 사례와 대처방안을 홍보하고 초일주지연 수회와 전국본사주지연수회 등을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 지역 환경·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들이 2월22일 담양성 예정지에서 지리산 할양담배지회대책위 관계자와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책협의회 환경교육전문가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과 각각 연계해 환경운동을 벌여온 경험을 바탕으로 3월중에 '종교인 환경운동 네트워크 모임'도 구성한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양상도) 19·20일 남원 실상사에서 불기 2544년도 1차 회의를 개최, 지리산할양담배지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향후 지리산 담 건설 계획과 관련해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같은 날 제2회 '지리산 열린 학교'를 개설한 실상사(주지 도법)는 지난해 8월 지리산 주변 7개 시군의 80여 종교·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지리산 산을 사랑하는 열린연대'를 구성해 지역생명·환경운동을 이끌고 있다.

이에 앞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민중종교 등 7개 교단은 1월28일 환경부 회의실에

통일千일강좌 개설

좋은벗들 3일 개강

사단법인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은 통일 강좌를 143주(1,000일) 동안 개설, 운용한다.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배움 마당 143'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총 12주제로 분리, 실시된다. 3개월 단위로 1개 마당(총 12마당)이 진행되는 통일 강좌의 첫 마당은 3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계속된다.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에 열리며 강좌는 90분 강의 이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02)15878-996

○통일·미래 배움마당 일정

날짜	주 제	강사(총 13명)
3월3일	인류의 미래와 통일시대의 비전	법륜스님(법륜사)
3월10일	통일의 전망(1)에서 바라본 통일	박노현(시민)
3월17일	내전의 분단시대, 통일의 심리학	이정호(서울대교수)
3월24일	북한사회의 사회의 이해	김정구(동국대교수)
3월31일	분단 50년, 남북대화 50년	정호모
		(성균관대(영남대))
4월7일	분단의 경제학, 통일의 경제학	임영희(KD백사)
4월14일	남북적 정서의 분단과 극복	장영택
		(성균관대(고려대))
4월21일	대포를 쏘고-군비축소의 평화경제	이철기(동국대교수)
4월28일	북한의 식량난과 남북한민문제	
4월-5월	속박교육/북한의 문화체질	북한연구회(상해)
5월5일	북기연(한미연합)을 위한 전략(1)	
	(북한기아예방소)	스님(천주교(대전))
5월12일	한반도 통일과 통일이 가져	김영희(동국대교수)
5월19일	북한사회의 어둠에 반항 것인가	최영희(고려대교수)
5월26일	간사기 통일미래를 이야기한다	심무지, 최영희
5월26일	영동 모교를 생각한다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 02) 732-1522 (직)
02) 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ol.co.kr>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매원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1. 연등의 뒷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앞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규격 : 폭28cm x 높이28cm

- 초꽃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포함, 탁승비 별도
- 가격 : 1,84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이름표>



비어 있지 않습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점등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규격 : 폭28cm x 높이28cm

- 초꽃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별도, 탁승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름표 포함 2,60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

<이름표>



비어 있지 않습니다.